

치기공과 학생들의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 및 관리실태

최에스터^{1*}, 권은자¹
¹혜전대학교 치기공과

A Study on the oral health Status and Knowledge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Students

Esther Choi^{1*} and Eun-Ja Kwon¹

¹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Hyejeon College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치기공과 학생들의 구강위생관리 실태 및 지식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구강보건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조사대상자는 충청도 소재 대학의 치기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10부터 12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 지식차이는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았고, 학년별 항목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구강위생관리 실태에 따른 구강관리지식차이는 일일 잇솔질 횟수가 5회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잇솔질 방법은 옆으로 치아만 한다에서 높았다. 치간 칫솔 이용유무 항목에서는 사용한다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따라서 전반적인 구강위생관리 실태는 구강보건교육의 경험이 있는 치기공과 학생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수업 시간에 계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익히는 사람들에게서 구강건강관리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도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도록 해야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ral health status and knowledge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student for the community to improve oral health and oral health education to help.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60 students in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at the University located in Chung-cheong and surveyed from November 2010 to December 2010. The finding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differences in oral care knowledge acco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he gender was higher in men than women, age was higher and higher the grade was higher in grade level($p<0.05$). The differences in oral care knowledge according oral health status of subjec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regarding the frequency of tooth brushing was highest rate in five times, method was on the side tooth higher and using the dental floss and interdental brush are used by the higher availability($p<0.05$). Thus, in the classroom oral health education and continuous learning from the people know that oral health care could differ. Oral health education in local communities to increase opportunities and people will need to improve oral health.

Key Words : Oral health, Oral health status, Oral health knowledge,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1. 서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사회단체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1].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질병이나 손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정의한다[2]. 그러므로 건강의 일부인 구강건강은 저작과 발

본 논문은 2009년 혜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 최에스터(esther@hj.ac.kr)

접수일 11년 10월 12일

수정일 11년 11월 03일

게재확정일 11년 11월 10일

음 및 심미기능을 발휘하는 인체의 중요한 소화기관의 첫 관문으로서 행복을 영위하는 필수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3].

구강건강이란 상병에 이환되지 않고 허약하지 않으며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악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4]. 구강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5].

구강은 크게 치아와 치주조직으로 나뉘어지는데 치아는 주로 음식물의 저작과 발음 및 안모의 심미에 기여하고 있고, 치주조직은 치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6]. 그리고 구강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치아상실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치아상실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이 중요한 원인요소가 되고 있음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7]. 치과 의료는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중심으로 구강 전역 및 이들과 관계하는 주위조직에 대한 질병과 장애에 관하여 연구하며, 이것을 예방하고 치치하는 의료이다[8]. 이러한 치과 의료자로는 치과의사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치과 의료를 도와주고 있는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보철물 제작에 있어서 능숙한 기술과 숙련을 가지고 치과기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9]. 치과기공물은 치과 진료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치과의료의 효과와도 대단히 관계가 깊으므로 치과의료 중에서 치과기공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인 대학생들의 경우 이들의 건강이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이 사회 주변인과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5].

따라서 치기공과 대학생들의 구강에 관한 지식과 태도가 지역사회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어 이 연구에서는 일부지역 치기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위생관리실태 및 지식을 파악하고 구강보건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구강보건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1월 10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충청도 소재 대학의 치기공과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9부를 제외한 151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박 등[10]이 사용한 도구를 참고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7문항, 구강관리 지식 5문항으로 잇솔질 교습, 불소도포, 치면 열구 전색, 치면 세마, 구강보조용품 사용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고 응답범위는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위생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구강관리 실태는 현재 본인이 자각하는 구강상태, 하루 잇솔질 횟수, 시기, 방법, 시간, 이유, 치약의 불소함유 유무, 사용하는 칫솔·구강보조용품, 기타 구강위생관리 활동, 잇솔질 교육 유·무, 치석제거 경험 유·무, 치과 방문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구강지식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강관리실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구강관리 지식정도에 대한 차이분석과 구강관리실태에 따른 구강관리 지식에 대한 차이분석은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Duncan's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성별로는 남자가 95명(62.9%)으로 여자 56명(37.1%)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25세가 100명(66.2%)로 가장 많았으며, 19세 이하 33명(21.9%), 26세이상 18명(11.9%)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147명(97.4%)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미혼이었으며, 재학 학년별로는 3학년이 가장 많은 62명(41.1%), 2학년 48명(31.8%), 1학년 41명(27.2%) 순이었다.

현 거주 소재지 별로는 도시가 122명(80.8%)로 많았으며, 흡연여부에서는 비흡연이 98명(64.9%)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 46명(30.5%), 과거흡연 4.6%였다. 음주여부별로는 현재 음주 116명(76.8%)으로 많았으며, 비음주 20명(13.2%), 과거음주 15명 (9.9%) 순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특 성	구 분	N	백분율 (%)
성 별	남	95	62.9
	여	56	37.1
연 령 (세)	~ 19	33	21.9
	20 ~ 25	100	66.2
	26 ~	18	11.9
결 혼 여 부	기 혼	4	2.6
	미 혼	147	97.4
재 학 학 년	1 학 년	41	27.2
	2 학 년	48	31.8
	3 학 년	62	41.1
현 거주 소재지	도 시	122	80.8
	농 촌	29	19.2
흡 연 여 부	흡 연	46	30.5
	과 거 흡 연	7	4.6
	비 흡 연	98	64.9
음 주 여 부	음 주	116	76.8
	과 거 음 주	15	9.9
	비 음 주	20	13.2
Total		151	100

3.2 대상자의 구강관리 지식정도

대상자의 구강관리 지식 정도는 표 2와 같이 4점 만점 에서 ‘잇솔질 교습 인지도’ 2.99로 가장 높았으며, ‘불소 도포 인지’ 2.72, ‘구강보조용품의 사용방법 인지’ 2.60, ‘치면세마 인지’ 2.49, ‘치면열구 전색 인지’ 2.32순으로 나타났다.

[표 2] 구강관리 지식점수 N=151
[Table 2] Knowledge stands of oral care

구 분	Min./Max	M±SD	순위
1. 잇솔질 교습 인지도	1/4	2.99±.84	1
2. 치면열구 전색 인지	1/4	2.32±1.20	5
3. 치면세마 인지	1/4	2.49±1.12	4
4. 불소도포 인지	1/4	2.72±1.01	2
5. 구강보조용품의 사용방법 인지	1/4	2.60±.93	3
전 체	1/4	2.62±.87	

3.3 대상자의 구강위생 관리실태

대상자의 구강위생 관리실태는 표 3과 같이 구강건강 상태에서 보통이다 57.6%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하지 않다 22.5%, 건강하다 19.9%순이었으며, 일일 잇솔질 횟수 에서는 3회 이상 58.3%, 2회 39.1%, 1회 2.6%순이었다.

[표 3] 대상자의 구강위생 관리실태 N=151
[Table 3] Status of oral health behavior for the subjects

특 성	구 분	N	백분율 (%)
구강건강 상태	건강하지 않다	34	22.5
	보통이다	87	57.6
	건강하다	30	19.9
일일 잇솔질 횟수	1회	4	2.6
	2회	59	39.1
	3회	75	49.7
	4회	8	5.3
	5회이상	5	3.3
잇솔질 방법	옆으로 치아만	3	2.0
	위아래로 치아만	15	9.9
	옆으로 치아와 잇몸	5	3.3
	위아래 돌려서 치아와 잇몸	63	41.7
	회전시켜 치아와 잇몸	65	43.0
칫솔종류	부드러운 모	74	49.0
	중간모	66	43.7
	잘 모름	11	7.3
	1분	14	9.3
	2분	50	33.1
잇솔질 시간	3분	66	43.7
	4분	15	9.9
	5분이상	6	4.0
	예	57	37.7
	아니오	11	7.3
현 불소치약 사용유무	예	11	7.3
	아니오	83	55.0
	잘 모름	30	19.9
치실, 치간 칫솔 이용유무	예	106	70.2
	아니오	15	9.9
	모르겠다	15	9.9
치솔, 치실, 치간칫솔의 구강위생 관리위해 사용 중인 것	전동칫솔	4	2.6
	구강양치액	16	10.6
	water pick	5	3.4
	없다	126	83.4
	금연	9	6.0
구강건강 관리 위한 활동	정기적 치과방문	15	9.9
	식사후 껌저작	33	21.9
	없다	94	62.3
	항상 우려된다	28	18.5
	가끔 우려된다	107	70.9
구강건강에 대한 우려	전혀 우려치 않는다	16	10.6
	치아를 깨끗이 보기 좋게	14	9.3
	충치, 치주질환 예방위해	107	70.9
	기분 상쾌하게 하기 위해	12	7.9
	습관적으로	4	2.6
잇솔질을 하는 이유	냅새때문에	14	9.3
	유	113	74.8
	무	38	25.2
	유	90	59.6
	무	61	40.4
지난 1년간 구강상태 확인위해 치과방문유무	유	93	61.6
	무	29	19.2
	1회	21	13.9
	2 ~ 3회	8	5.3
	4회 이상	8	5.3
불편시 즉각 치과방문 여부	예	65	43.0
	아니오	86	57.0

잇솔질 방법에서는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칫솔을 회전시키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가 43%, 위아래로 돌려가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가 41.7%로 비교적 좋은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칫솔 종류로는 부드러운 모 49%, 중간모43.7%로 어떤 종류의 칫솔을 사용하는지 인지하는 정도가 92.7%로 많았으며, 잇솔질 시간에서는 3분이 43.7%로 가장 많았고, 2분이 33.1%순으로 나타났다.

지금 사용하는 치약에 불소 유무에서는 잘 모름 55%로 가장 많았으며, 불소치약을 사용한다가 37.7%로 나타났다. 잇솔질 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유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70.2%로 가장 많았고, 사용하다 19.9%, 모른다 9.9%순이었으며, 칫솔, 치실, 치간 칫솔의 구강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도구는 없다가 가장 많은 83.4%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6.6%만이 기타 관리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활동에서는 없다 62.3%로 가장 많았으며, 식사 후 껌 저작 21.9%, 정기적 치과방문 9.9%, 금연 6%순이었다. 구강건강에 대한 우려에서는 가끔 우려가 70.9%로 가장 많았으며, 항상 우려 18.5%, 전혀 우려치 않는다 10.6%순이었으며, 잇솔질을 하는 이유에서는 충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70.9%로 가장 많았으며, 냄새 때문에, 치아를 깨끗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가 각각 9.3%, 기분 상쾌하게 하기 위해 7.9, 습관적으로 2.6%순이었다.

잇솔질 교육 유무에서는 경험이 74.8%로 경험이 없는 군 25.2%보다 많았으며, 치석제거 경험 유무에서는 경험이 있다 59.6%가 경험이 없다 40.4%보다 많았다. 지난 1년간 구강상태 확인위해 치과방문 유무에서는 없다가 61.6%로 가장 많았으며, 1회 19.2%, 2-3회 13.9%, 4회 이상 5.3%순이었으며, 불린 시 즉각 치과 방문 여부에서는 아니오 57%로 예 43%보다 많았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지식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 차이검증은 표 4와 같다. 결혼여부, 흡연여부, 음주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2.78로 여자 2.36보다 지식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 연령별로는 26세 이상 3.10, 20~25세 2.67, 19세 이하 2.24순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구강관리 지식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

Duncan's 사후검증결과 각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서는 3학년이 3.33, 1학년 2.19, 2학년 2.08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Duncan's 사후검증결과 1, 2학년과 3학년에서 차이가 있었다. 현 거주 소재지별로는 농촌지역 2.92, 도시지역 2.55로 농촌지역 거주자가 구강관리 지식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43).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 지식 차이검증 N=151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oral care knowledge verification

특성	구분	N	M	SD	t or F	p	DMR
성별	남	95	2.78	.85	2.966	.004*	
	여	56	2.36	.84			
연령(세)	~ 19	33	2.24	.67	6.532	.002*	A
	20 ~ 25	100	2.67	.88			B
	26 ~	18	3.10	.90			C
결혼여부	기혼	4	2.80	.82	.409	.683	
	미혼	147	2.62	.87			
재학학년	1학년	41	2.19	.70	63.734	.000*	A
	2학년	48	2.08	.65			A
	3학년	62	3.33	.59			B
현거주소재지	도시	122	2.55	.86	-2.041	.043*	
	농촌	29	2.92	.85			
흡연여부	흡연	46	2.75	.85	1.538	.218	
	과거 흡연	7	2.97	1.05			
	비흡연	98	2.54	.86			
음주여부	음주	116	2.58	.86	.677	.509	
	과거음주	15	2.73	.98			
	비음주	20	2.80	.86			

* p<.05

3.5 구강위생관리 실태에 따른 구강관리지식 차이

대상자의 구강위생 관리 실태에 따른 구강관리 지식 차이검증은 표 5와 같다.

칫솔 종류, 잇솔질 시간, 현 불소치약 사용유무, 기타 도구 사용, 관리활동, 구강건강 우려, 잇솔질 이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강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다에서 3.13으로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건강하지 않다 2.58, 보통이다 2.46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Duncan's 사후검증결과 건강하다와 보통이하 군 간의 차이로 나타났다.

일일 잇솔질 횟수에서는 5회 이상에서 3.40으로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1회 3.15, 4회 2.95, 3회 2.69, 2회 2.40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25). Duncan's 사후검증결과 5회 이상과 2~3회간 뚜렷한 차이로 나타났다.

[표 5] 대상자의 구강위생 관리실태에 따른 구강관리 지식 차이검증

N=151

[Table 5] Oral health behavior of subjects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oral care knowledge verification

특 성	구 분	N	M	SD	t or F	p	DMR
구강건강 상태	건강하지 않다	34	2.58	7.189	.001*	A	
	보통이다	87	2.46			A	
	건강하다	30	3.13			B	
일일 잇솔질 횟수	1회	4	3.15	2.887	.025*	AB	
	2회	59	2.40			A	
	3회	75	2.69			A	
	4회	8	2.95			AB	
	5회이상	5	3.40			B	
잇솔질 방법	옆으로 치아만	3	3.60	3.683	.007*	A	
	위아래로 치아만	15	2.36			B	
	옆으로 치아와 잇몸	5	2.08			B	
	위아래 돌려서 치아와 잇몸	63	2.45			B	
	회전시켜 치아와 잇몸	65	2.85			AB	
칫솔종류	부드러운 모	74	2.56	.542	.582		
	중간모	66	2.66				
	잘 모름	11	2.82				
잇솔질 시간	1분	14	2.29	1.874	.118		
	2분	50	2.49				
	3분	66	2.83				
	4분	15	2.52				
	5분이상	6	2.53				
현 불소치약 사용유무	예	57	2.83	2.993	.053		
	아니오	11	2.69				
치실, 치간 칫솔 이용유무	잘 모름	83	2.47	3.894	.022*		
	예	30	2.93			A	
	아니오	106	2.60			A	
칫솔, 치실, 치간칫솔 외 구강위생 관리위해 사용 중인 것	모르겠다	15	2.19	1.162	.326	B	
	전동칫솔	4	2.70				
	구강양치액	16	2.88				
	water pick	5	3.12				
구강건강 관리 위한 활동	없다	126	2.57	2.540	.059		
	금연	9	2.82				
	정기적 치과방문	15	2.91				
	식사후 껌저작	33	2.87				
구강건강에 대한 우려	없다	94	2.47	1.748	.178		
	항상 우려된다	28	2.90				
	가끔 우려된다	107	2.56				
잇솔질을 하는 이유	전혀 우려치 않는다	16	2.56	.166	.955		
	치아를 깨끗이 보기 좋게	14	2.60				
	충치, 치주질환 예방위해	107	2.64				
	기분 상쾌하게 하기 위해	12	2.57				
	습관적으로	4	2.30				
잇솔질 교육 유무	넵새때문에	14	2.66	2.939	.004*		
	유	113	2.74				
	무	38	2.27				
치석제거 경험 유무	유	90	2.67	.848	.398		
	무	61	2.55				
지난 1년간 구강상태 확인 위해 치과방문유무	무	93	2.64	.850	.469		
	1회	29	2.59				
	2 ~ 3회	21	2.77				
	4회 이상	8	2.20				
불편시 즉각 치과방문 여부	예	65	2.70	.878	.382		
	아니오	86	2.57				

* p<.05

잇솔질 방법에서는 옆으로 치아만 한다에서 3.60으로 가장 높았으며, 회전시켜한다 2.85, 위 아래 돌려서 2.45, 위아래로 치아만 2.36, 옆으로 치아와 잇몸 2.08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7). Duncan's 사후검증 결과 옆으로 치아만 한다는 군과 나머지 구간 차이였다. 치실 및 치간 칫솔 이용유무에서는 사용한다가 2.93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용하지 않는다 2.60, 모르겠다 2.19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22).

4. 고찰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구강보건 향상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치과기공사가 될 치기공과 대학생들의 구강에 관한 지식과 태도가 국민구강건강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구강관리 지식 정도로 높은 항목으로는 잇솔질 교습 인지도가 2.99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불소도포 인지도 2.72, 구강보조용품의 사용방법 인지도 2.60, 치면세마 인지도 2.49, 치면열구 전색 인지도 2.32 순으로 나타났다. 백[11]은 한국인의 치아우식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치아우식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화물 및 치면열구 전색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구강위생 관리실태에서 구강건강 상태는 보통이다 혹은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학생이 과반수 이상으로, 조[12]와 강[13]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사업장 근로자들은 자신의 구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대답한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인보다는 치기공과 학생들의 구강관리가 더 잘되고 있음으로 사료된다. 일일 잇솔질 횟수에는 3회 이상이 58.3%로 가장 높았다. Glickman[14]은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하루에도 음식물 섭취 후 여러번 잇솔질 할 것을 권하여 잇솔질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조[15]의 일부지역 주민들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잇솔질 하는 횟수로 2회 정도가 61.7%로, 이[16]의 연구에서는 치위생사가 잇솔질 횟수로 3회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박[10]의 연구에서는 치위생 학생들은 3회가 47.7%, 일반 대학생이 38.8%로 나타나 구강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치기공과 학생들과 치위생사들은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잇솔질 횟수가 일반인 보다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잇솔질 방법에서는 회전시켜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와

위아래 돌려서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가 43%와 41.7%로 좋은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12]의 연구에서는 구강보건실천도에서 회전법에 대한 실천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박[10]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회전시켜 닦는다가 58.6%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 대학생들은 회전시켜 닦는다가 36.4%로 나타났으며 이[16] 연구에서는 치위생사가 회전하며 닦는다가 85.2%로 나타나 치기공과 학생들은 치위생사들보다는 낮고 일반인들보다는 올바른 잇솔질 실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칫솔 종류로는 부드러운 모 49%, 중간모 43.7%로 어떤 종류의 칫솔을 사용하는지 인지하는 정도가 92.7%로 많았으며, 잇솔질 시간에서는 3분이 43.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이는 치과의사협회에서 권장하는 시간과 같았다. 지금 사용하는 치약에 불소 유무에서는 잘 모름 55%로 가장 많았으며, 불소치약을 사용한다가 37.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 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아직도 치기공과 학생들에게 불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잇솔질 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유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70.2%로 가장 많았고, 사용한다 19.9%, 모른다 9.9%순이었으며, 칫솔, 치실, 치간 칫솔 외 구강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도구는 없다가 가장 많은 83.4%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6.6%가 기타 관리 도구를 사용하였다. 서울특별시민의 가정구강보건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치간칫솔과 치실의 사용율이 4.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치기공과 학생들의 구강보조용품의 사용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 지식 차이는 성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지식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구강관리 지식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성별과 연령에서 치기공과 특성상 남학생이 지지하는 비율이 많고, 연령부분에서도 군대를 갔다 온 남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 남학생과 연령이 높을수록 지식점수가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에서는 3학년이 가장 높게 나왔고 1, 2학년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3학년에 구강 보건학이라는 구강위생과 직접 연관 있는 과목을 배우고 있어 반복적인 교육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 대상자의 구강위생 관리 실태에 따른 구강관리 지식 차이는 구강건강상태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구강관리 지식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일 잇솔질 횟수에서는 5회 이상에서, 치실 및 치간 칫솔 이용유무에서는 사용한다가 지식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강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은 학생들이

일일 잇솔질 횟수가 많고, 치실 및 치간 칫솔 사용으로 구강관리를 잘하고 있어 건강하다고 응답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잇솔질 교육 유무에서는 경험이 있다가 경험이 없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을 담당할 인력으로서 구강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히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인 치면세균막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17]은 치면세균막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잇솔질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구강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치기공과 학생들로서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잇솔질의 목적과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알맞은 잇솔질 방법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전반적인 구강관리 실태가 구강보건교육의 경험이 많은 치기공과 학생들이 일반인들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수업시간에 계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실시요령을 익히는 사람들에게서 구강건강관리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기공과 학생들은 구강보건교육시간에 받은 교육과 매체들을 통해 지속적인 개별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반인들의 구강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치기공과 학생들의 구강위생관리 실태 및 지식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구강보건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충청도 소재 대학의 치기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관리 지식정도에서는 잇솔질 교습 인지도가 2.99로 가장 높았으며, 구강위생 관리 실태에서는 구강건강 상태는 보통이다가 57.6%로 가장 높았고, 일일 잇솔질 횟수는 3회 이상이 58.3%로 가장 높았다. 잇솔질 방법에서는 회전시켜 치아와 잇솔을 닦는다가 43%였고, 잇솔질 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유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가 70.2%로 가장 높았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관리 지식차이는 성별로 남자가 2.78로 유의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26세 이상이 3.10으로 유의적으로 높았다. 학년에서는 3학년에 3.33으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 있었다.

3. 구강위생관리 실태에 따른 구강관리지식차이는 일일 잇솔질 횟수에서 5회 이상에서 3.40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고, 잇솔질 방법에서는 옆으로 치아만 한다에서 3.60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 치실 및 치간 칫솔 이용유무에서는 사용한다가 2.93으로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References

- [1] Kim JB, "Public health dentistry", 3th ed, pp. 10, Komoonsa, Seoul, 2000.
- [2] Kim JO, "Public health", pp.11~19, Cheong-Gu, Seoul, 2006.
- [3] Kim JB, Choi YJ, "Public health dentistry", pp. 3-4, Komoonsa, Seoul, 2006.
- [4] Kim JB, Choi YJ, Moon HS et al., "Public Oral Health, A revised edition, pp. 12, Koonsa, Seoul, 2000
- [5] Choi EM, "A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dental health knowledge and the usage of the oral hygiene devices" Dong-U College Jol 6, pp. 377-391, 1994.
- [6] Lee HY, "A study on the oral care organization in the us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9.
- [7] Kim JB, "Public health dentistry", pp. 13, Komoonsa, Seoul, 1997.
- [8] Park HB, et al., "Introduction to Dental Technology" pp. 9-10, Daihaks Publishing Company, 2001.
- [9] Han CSb et al., "The Term of Dental Technology" pp. 74, Jungmunkag, 2010.
- [10] Park IS, et al., "A Coparative Study on the Behavior Status of Oral Health between Dental Hygiene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Hygiene Science, pp. 175-182, 2008.
- [11] Back DI, "A study of Knowledge, Attitudes and Management Practices about Dental Caries Prevention in Korean", Korea Academy of Dental Health, 1993.
- [12] Jo SS, "A study of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of Workers", Chung 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0.
- [13] Glickman IC, "A Bule Print for the Periodontal Health of the American Public", J. Periodontology, pp. 38:361-365, 1967.
- [14] Kang MS, "The Effect of Plaque Disease on Oral Health Awareness, Attitudes, Behavior and Knowledge",

Yon 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4.

- [15] Jo MS, "A study of Periodontal Disease Awareness of Some Residents", Kor-Hygiene Vol.2, No.1-2, 1996.
 - [16] Lee KH, "A Study of the real Conditions of the Knowledge and Management of Dental Hygienists' Oral Hygiene", Chung 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2.
 - [17] Kim JG, "Chemotherapy in Periodontal Disease", J Korean Dent Assoc, pp. 21(6) 445-448, 1983.
-

최 에스 더(Esther Choi)

[정회원]



- 2004년 8월 : 중앙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 2009년 9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치의학과(박과과정)
- 2006년 3월 ~ 현재 : 해전대학교 치기공과 교수

<관심분야>

치과기공, 생체재료, 치과재료

권 은 자(Eun-Ja Kwon)

[정회원]



- 2000년 2월 :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 석사)
- 2007년 8월 : 배재대학교 재료공학과 (공학 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해전대학교 치기공과 교수

<관심분야>

치과기공, 생체재료, 치과재료